

# 연예

10

2020년 1월 8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뜬다 | 그들의 감성을 대변하는 대중문화 변화 <중>

## TV 탈출시대...상시 1000만...세계주류 K팝

<방송가>

<영화계>

<가요계>



타실 수 있겠어요?



2000년 이후 대중문화는 변화와 도약을 거듭했다. 플랫폼 다변화 속에 '와셋맨' (왼쪽) 등 웹예능프로그램이 탄생했고, 세계로 향한 한국영화는 '기생충' (가운데)의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성과로 이어졌다. 케이팝의 진화를 이끄는 방탄소년단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사진제공 | 유튜브·CJ·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년의 문이 열렸다.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이 시작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2000년에 태어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이제 어엿한 스무살 청춘의 길에 들어선 '밀레니엄 베이비'. 연기자 김새론, 정다빈, 김향기를 비롯해 그룹 워너원의 배진영, SF9의 찬희, 래퍼 김하은 등 이 세대들이 이끌 새로운 문화의 결은 이전과 다를 터이다. 스포츠동아가 이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다. '밀레니엄 베이비'들의 감성을 키워준 지난 20년의 대중문화 변천상은 이들이 주도할 새로운 연대의 바탕이다.

방송, 웹예능 '와셋맨' 등 유튜브 콘텐츠 유행 1회당 5분 분량 '신서유기 외전' 등 포맷 신선

### ● "요즘 누가 TV 보나요?"...플랫폼 다양화

2010년대 방송가의 화두는 단연 '탈(脫) 안방극장'이었다. 시청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또 다른 수단으로 모바일과 컴퓨터를 대신 선택하고 나섰다.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를 비롯해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각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가 이끈 변화다. 특히 2008년 한국에 상륙한 유튜브는 빠르게 힘을 키웠다. 작년 11월 나우엔서베이가 5월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오후 7시 이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꼽아달란 질문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유튜브(56.7%)를 꼽았을 정도다.

자연스럽게 방송가에도 변화에 발맞춘 콘텐츠가 쏟아졌다. 2015년 방송프로그램에 인터넷 실시간 채팅을 처음 도입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과 TV프로그램 못지않게 큰 인기를 끈 웹예능프로그램 '와셋맨'(2018) '워크맨'(2019) 등이 대표적이다.

TV 최초로 1회당 5분 분량을 편성해 '채널심야' 유튜브 계정에 함께 공개한 tvN '신서유기 외전:삼시세끼-아이슬란드 간 세계' 등처럼 파격적인 포맷 실험도 잇따랐다.

드라마 분야에서도 '숯폼(썩은 폼)'이 새롭게 주목 받았다. 10분 분량의 유튜브 콘텐츠에 익숙해진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저마다 60분가량 분량의 한 회차를 2, 3회로 쪼개 방영하고, 기존의 16~20부 길이를 8~10부까지 줄인 경우도 생겼다.

이런 흐름 속에서 톱스타들도 TV 대신 유튜브로 향했다. 배우 신세경, 헤리, 요리연구가 백종원 등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열고 시청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영화, 2000년 이후 1000만 작품만 총 19편 '기생충' 황금종려상 등 한국영화 세계서 주목

### ● '상시 1000만과 글로벌화...한국영화의 성장

2000년 이후 한국영화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년 동안 장르의 확장을 동반한 블록버스터가 등장했고, 흥행작도 여러 편 탄생했다. 이는 기술력의 발전까지 이끌었다.

'밀레니엄의 시대'를 상징하는 한국영화 키워드는 '1000만 영화'이다. 2003년 '실미도' 이후 '괴물' '해운대' '부산행' 등 총 19편이 나왔다. 그중 '명량'은 1761만 관객을 동원, 역대 흥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1000만 영화의 탄생은 본격적인 블록버스터를 등장시켰다. '마이웨이', '군함도', '신과함께' 시리즈는 200~300억원대 대작이다. 일부 해외 자본이 투입된 '설국열차'는 400억대에 달했다.

탁월한 VFX(시각특수효과) 기술력으로 완성했다는 공통점도 지녔다. 1990년대 말까지 할리우드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인식된 기술력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유랑자' 같은 중국 블록버스터까지 책임지는 위치까지 도달했다.

2012년 한국영화 연간 관객이 1억명을 돌파한 이래 같은 수치가 8년째 지속됐다. '밀레니엄 스타'로 꼽히는 배우들의 활약이 또 하나의 배경이다. 2000년 이후 데뷔해 티켓파워를 과시해온 류승룡, 하정우, 공유, 강동원, 송중기 등이다.

세계무대에서도 인정받았다. 한국영화로는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처음 오른 '춘향전'(2000)부터 '올드보이', '밀양', '시' 등 성과가 쌓여 지난해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결실을 낳았다.

물론 과제도 있다. 양적·질적 팽창이 한국영화의 다양성까지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열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대안 마련은 2020년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영화계의 숙제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가요, 미국 빌보드·영국 UK차트 등 장벽 깨 BTS·블랙핑크 등 이제 세계무대 정상서 활동

### ● 케이팝의 진화는 계속된다

대중문화의 각 영역 가운데 가장 스펙터클하게 변화한 콘텐츠는 대중가요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아시아 가수들에게는 꽤나 진입 장벽이 높았던 미국 빌보드와 영국 UK차트에 진입한 것은 물론 정상을 차지하게 됐다. 특히 과거 '월드뮤직'으로 통칭되던 한국의 대중음악이 '케이팝'이라는 단어로 진화하면서 세계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세계 최대 대중음악 시장인 북미지역에서 대형 공연장을 꽉 채울 수 있는 글로벌 스타가 잇따라 탄생한 것은 이 같은 변화를 고스란히 밝혀준다. 과거 해외 공연이 오랜 활동을 펼치고 팬덤이 탄탄한 가수들만이 가능했던 것이라면 케이팝 스타들의 월드투어는 이제 일반화했다.

이처럼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슈퍼엠, 블랙핑크, 트와이스, 몬스타엑스 등 글로벌 그룹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급성장하며 그 발판을 마련해준 이들이 있다. 아이돌 1세대, H.O.T.와 젝스키스 등 아이돌 1세대의 노래는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나가며 아시아에 국한됐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혀갔다.

점차 케이팝의 경쟁력이 커지면서 소비 행태도 바뀌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음원시장이 확대됐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음악을 소비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한차례 진화하면서 케이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도 그 흐름을 상징하게 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매드리가 얹어 가는 그날까지!**  
**할머니가 하이킹 차는 그날까지!**

각투기 영웅의 고풍함

**이종TV**

이종TV 유튜브채널 인기 폭발

**인테리어**

카페, 커피숍 10~20% 특별 할인

\*유리형 외부 인테리어 \*전국, 시, 도, 모델매장 선착순  
\*실내 유리형 공전 분유기 공사금액 원가 시공서비스 단행 (시, 도 지사권 부여)

010-8894-4099 / 070-8917-8467

서울시 중로구 평창동 290-6

**건설기술자 중급/고급 승급 과정 신청안내**

"건설재료기사 + 사이버대학교 = 빠르게 확실한 승급"

건설기술인 등급 변경

중급 이상 기술자 부족사태 해결 정부의 건설기술자 개선정책

특급	관련학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음. 누구나 경력만 되신다면 승급!
고급	정부의 건설기술인 구도개편 혜택! 다시 올수 있는 기회를 꼭 보세요.
중급	가능사로 승급 승급시 16년 경력 인정! 승급과정시 4년이면 중급/고급!
초급	

경력 4년 중급! / 경력 4년 고급!

건설재료기사 1년 과정	건설재료기사+건설대학
4년 경력 중급	1년6월 경력 중급
10년 경력 고급	4년 경력 고급
25년 경력 특급	10년 경력 특급

비고 \*합격시까지 운영관리 \*모의고사 평가 실시

"건설기술자 승급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한정 접수중 !!

건설종합기술원본사(건설기술협력회) ☎02-866-4395

최악의 상황에서 짐초처럼 지란인 여인의 씩씩하고 끈질긴 서정시의 감동실화

**수요일에비가내리면**

"정규법 작가의 울분과 하소연은 수많은 동병상련 남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선물합니다!"

정규법 저음 | 13,000원

평화로운 가정을 짓고자 노력하는 불운으로 인해 고통받는 배우자의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직접 체험한 삶을 바탕으로 불운으로 인해 당하는 배우자의 억울함을 하소연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따뜻한 위로를 새움게 다지고 있다.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 이아람으로 동병상련의 삶에 지친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전국 유명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에너시스 (02) 3296-1184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

갤럭시 S10 5G / 아이폰XS MAX 할부개통 가능

**휴대폰 현금** 당장 쓰실분

현금 100~390만원 즉시지급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백화점 상품권증정

**010-3914-3777**

전국 출장 가능 (제주도 가능) (주)참바론신

**개별만남 외로운 사람끼리**

남녀 누구나 환영 통화하다 애인하고 취미공유 결혼까지

**좋은친구들**

**1800-3379**

**010-4299-2121**

전국시군구 ♥가맹점모집